

멕시코 정보통신 시장의 현황과 전망

1. 시장 개관

□ 중남미 제2대 정보통신 시장으로 높은 성장 잠재력 보유

○ 인구 1.1억 명, 경제 규모 8,683억 달러의 멕시코는 브라질에 이어 중남미 최대 규모의 정보통신 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역내 국가 중 비교적 높은 개인 PC 보급률(10가구당 3.5대)을 기반으로 초고속 인터넷 사용자 수가 증가하면서 온라인 상거래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¹⁾

- 2008년 멕시코의 정보통신 시장 규모는 459억 달러로 전세계 정보통신 시장(3조 7,864억 달러)의 1.2%를 차지하였음. 한편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시장 규모는 731억 달러였음.

○ 시장이 성숙기에 들어선 여타 중남미 주요국²⁾과는 달리 멕시코는 유선 전화와 이동전화 보급률이 각각 20%와 80% 미만, 초고속 인터넷은 20%에도 못미치고 있어 성장잠재력이 높은 상황이며, 최근 몇 년간의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과 인터넷 시장을 중심으로 양호한 성장세를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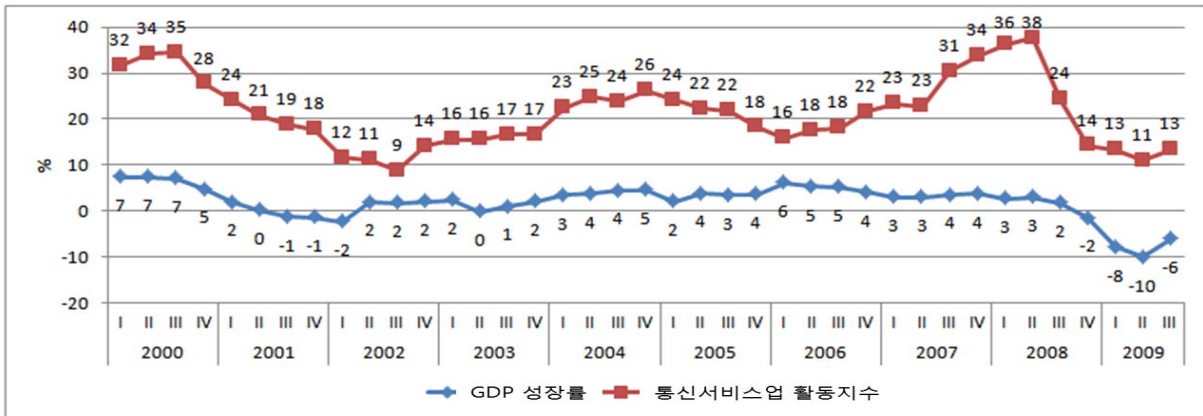
- 글로벌 경제위기가 시작되었던 2008년에도 멕시코 통신시장은 20%대 후반의 양호한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사상 최악의 경기침체(-6.9%)를 겪었던 2009년에도 10%대의 성장세를 유지하였음.

* 통신 서비스업 활동지수 추이 : 18%('06년) → 28%('07년) → 27%('08년) → 12%('09년 9월 누계)

1) 주요 70개국에 대한 IT 발전 정도를 평가한 EIU의 E-readiness 국가 순위상 멕시코는 40위로 중남미 2위를 차지하였으며, 2010년 세계경쟁력보고서에 의하면 E-broadband 가입자 수 기준 세계 133개국 중 비교적 높은 50위를 기록함.

2) 칠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는 이동전화 보급률이 100%를 상회하며, 브라질, 콜롬비아는 90%임. (Fitch, Latin America Telecom and Media Outlook 2010)

<그림 1> GDP 성장률 및 통신서비스업 활동지수 추이 (분기별)



자료: Cofetel(Federal Commission of Telecommunication, 연방통신위원회)

□ 정부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 분야의 개혁은 지지부진

- 멕시코는 한반도의 9배에 달하는 광활한 국토를 보유하고 있어 통신 인프라 구축 등 시장 진입시 막대한 투자자금이 소요되나, 제도적인 시장 진입 장벽이 높아 외국계 기업의 시장 진출이 활발하지 못함.
- 유선 통신망에 대한 외국인 투자 지분을 제한(49% 이하)하는 정보통신 법으로 인해 유무선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외자 기업은 현지 기업에 비해 투자 효율성이 떨어지며, 유선전화 통신망을 이용한 인터넷 서비스 등 기술통합(convergence) 서비스에 유리한 세율을 제공하고 있어, 외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통신업 전반에 걸쳐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 펠리페 칼데론(Felipe Calderon) 현 대통령은 취임 이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목표 중 하나로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선정하고, 정보통신산업내 자유경쟁 및 보급률 확대를 도모하고 있음.
- 정부는 Telmex사와 Telcel사의 유선전화와 이동전화 시장 독과점³⁾ 현상 해소를 위한 정책을 도입⁴⁾하였으며, 연방통신위원회(Cofetel)의 권한을

3) Telmex는 유선전화 시장의 90%를 Telcel은 이동전화 시장의 70%를 독과점 하고 있음. 이동통신 부문의 제2위 회사인 스페인 계열의 Telefonica의 자회사인 Movistar의 시장 점유율은 20%에 불과함.

강화하여 반독점 규제를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1995년 제정된 현 정보통신법의 개정을 추진 중임.

- 2008년 초 추진되었던 정보통신법 개정 시도는 야당의 반대와 Telmex 등 독과점 기업의 강력한 로비 활동 등으로 좌절되었고 국내외 경기침체 지속으로 현재 개혁 논의는 지지부진하나, 갈데론 정부의 정책 기조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보임.

□ 투자 증가로 이동전화 및 인터넷 보급률 확대 지속

- 최근 수 년간 멕시코는 주요 수출 품목인 원유의 국제 시세 상승과 마킬라도라 수출 호조에 힘입은 경제 호황으로 정보통신 산업 부문에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이뤄졌으며, 2004년 이후 매년 30억 달러 이상의 투자자금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음.
- 내수 확대와 해외 근로자 본국 송금액 유입으로 인한 가처분소득 증가 등으로 고성장을 거듭하던 이동통신 시장은 미국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2007년 이후 연매출 성장률이 감소세를 보임.

<표 1> 산업 관련 주요 경제 지표

구 분 (단 위)	2005	2006	2007	2008	2009 ^o
GDP (억 달러)	8,490	9,523	10,524	10,881	8,683
인구당 GDP (달러)	7,994	8,863	9,433	9,896	7,810
인구당 가처분 소득 (달러)	4,224	4,383	4,573	4,583	3,327
통신시장 투자 규모 (억 달러)	35	37	32	39	30
· 음성통신 관련 투자	30	29	25	26	24
· 기타 투자	5	8	7	13	6
통신시장 투자 연성장률 (%)	-3.0	6.9	-13.9	23.1	-24.3
유선 통신 매출 연성장률 (%)	3.0	8.0	0.3	5.2	-0.3
이동 통신 매출 연성장률 (%)	22.4	21.8	18.0	5.1	-15.8

자료: EIU Viewswire

4) 갈데론 정부는 2008년 7월 중남미 최초로 번호이동 서비스를 도입하고, 2010년 상반기 광역망 신규 스펙트럼 사업권 입찰을 계획하는 등 신규 기업의 시장 진출과 통신 서비스 보급률 확대를 위해 노력중임.

- 유선통신 시장의 연간 성장세는 2000년 13%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05년부터 성장률이 한 자릿대로 둔화된 반면, 이동전화 가입자 수 증가율은 2004~8년간 20%대의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는 등 유선과 이동전화의 역전 현상이 뚜렷함.
- 2009년 9월 현재 내수 시장의 위축과 지속적인 가격 인하 정책으로 인해 통신시장의 전체 매출액은 감소하였으나 전체 가입자 수는 증가하여, 유선전화 회선은 전년 동기대비 2.7% 증가한 2,053만 개,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7.4% 증가한 7,850만 명임.

□ 가격인하 정책에도 불구하고 통신비용은 높은 수준

- Telmex는 선두기업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지난 9년간 유선전화 사용료를 동결하였고, 이동전화 부문도 여러 결합상품의 판매, 시장 경쟁 장려 정책 등 가격 인하를 위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멕시코의 정보통신 서비스 사용료는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⁵⁾이며, 여타 중남미 주요국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임. 이는 통신시장의 과독점 체제⁶⁾ 유지로 인해 가격 경쟁 유인이 적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중남미 지역내 제 1위의 정보통신 보급률을 자랑하는 칠레의 경우 점유율이 가장 높은 기업이 유선통신은 45%, 이동통신은 43%, 인터넷은 56%인데 반해, 멕시코는 1위 기업의 점유율은 각각 90%, 72%, 78%에 달함.
- 비교적 저렴한 이동전화 통신료를 제외한 나머지 부문에서는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에 비해 멕시코의 통신료가 비싼 것으로 나타나며, 이와 반대로 개인용 PC 가격은 멕시코가 가장 저렴⁷⁾한 것으로 나타남.

5) 멕시코의 이동통신 사용료는 OECD 회원국 중 미국, 체코, 슬로바키아에 이어 가장 높은 수준임 (OECD, 정보통신 사용료 관련 보고서, 2009년 8월)

6) 미국 무역대표부(Office of the US Trade Representative)는 멕시코 통신시장의 폐쇄성을 WTO에 제소하였고, 2004년 미국이 재판에서 승소한 이후 Telmex의 접속료가 크게 인하되었음. 시장 개방과 함께 이동통신 이용료는 약 50%, 1991년 이후 유선 전화 통신료는 67% 그리고 광랜 인터넷 서비스 이용료는 2008년 현재 2000년 대비 90% 인하됨.

7) 2008년 현재 모니터와 키보드를 포함한 512MB 데스크탑의 평균가는 1,843달러로 월 가치분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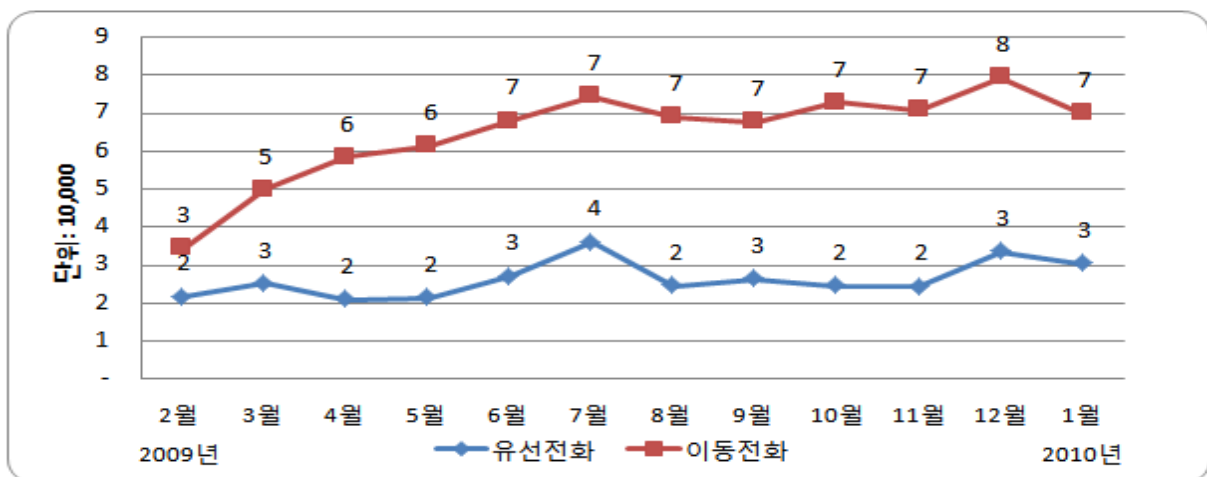
- 2007년 기준 유선전화선의 월 평균 기본요금은 19.04 달러로 역내 주요국 중 가장 저렴한 아르헨티나(5.15달러)의 3배에 달하며, 인터넷 사용료는 DSL 접속료 및 대여료 등을 기준으로 중남미 주요 4개국 중 가장 높은 수준임.

2. 최근 시장 동향

□ 번호이동 서비스 도입으로 기업간 경쟁 심화 기대

- 멕시코 정부는 정보통신 산업의 과독점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2008년 7월 중남미 최초로 번호이동 서비스(Number Portability)를 도입⁸⁾하였음.
- 번호이동 서비스 신청 건수는 2009년 2월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매월 약 10만 건의 번호 이동이 이뤄지고 있음.

<그림 2> 번호이동 서비스 신청 건수 (2009년 2월~2010년 1월)



자료 : Cofetel

대비 460%이며,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아르헨티나 798%, 브라질의 636%, 칠레 586% 대비 저렴한 편임.

- 8) 번호이동서비스는 브라질, 에콰도르, 푸에르토리코, 도미니카공화국에서 전면 도입되었으며, 파나마는 현재 유선전화만 번호이동서비스가 가능함. 2010년에는 콜롬비아, 페루, 파나마(이동전화), 칠레에서 실시할 예정임.

- 번호이동 서비스 도입 이후 2009년 1월 말까지 약 140만 건의 번호 이동이 이뤄졌으며, 당초 번호이동 서비스 도입시 이동통신 1위 기업인 Telcel의 이탈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도입 이후 1/4분기 결산 결과 Telcel의 가입자 수는 도리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반면, 이동통신사인 Movistar와 유선통신사인 Telmex엔 각각 55만명, 27만명의 가입 이탈자가 발생함.
- 번호이동 서비스 도입은 기존의 번호로 원하는 통신사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통신 서비스 품질 향상과 업계 경쟁 강화를 위해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초고속 인터넷 시장을 중심으로 서비스 확대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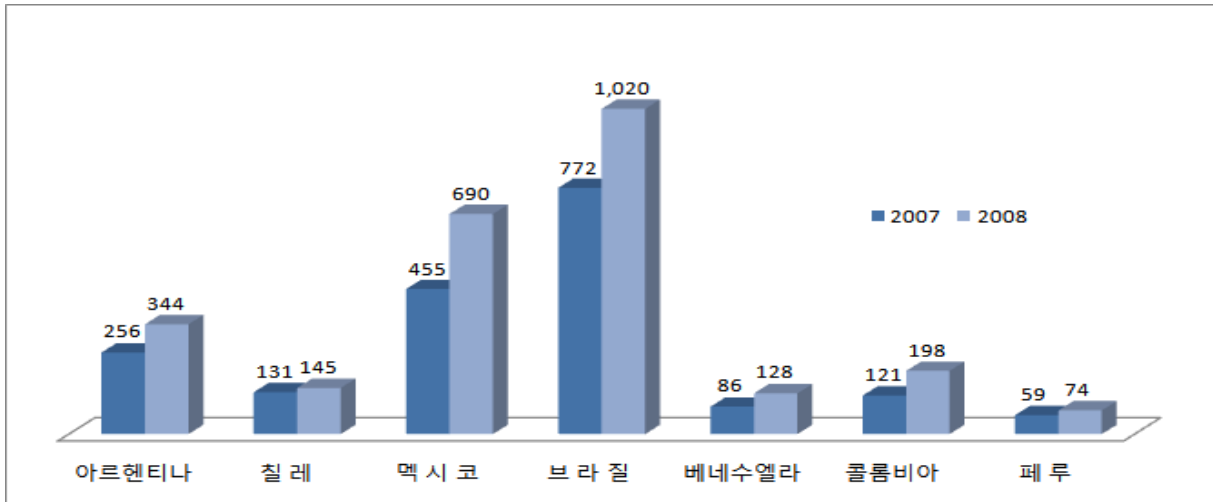
- 광대역 통신망을 통한 인터넷 접속은 2002년 전체 인터넷 서비스의 10%에서 2008년 80%에 달할 정도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인터넷 가입률 증가와 함께 전자 결제 서비스 및 온라인 전자상거래 서비스가 시범적으로 도입되고 있음.
- 멕시코의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은 2008년 기준 전체 인구의 18%, 가구별 6.5%로 역내 3위 수준이나, 이는 여타 OECD 회원국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임⁹⁾. 그러나 100명당 인터넷 사용자가 5.1명이었던 2000년 대비 2008년에는 21.2명으로 증가하는 등 매년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인터넷 보급률 추이(100명당) : 13('04년) → 17('05년) → 19('06년) → 20('07년) → 21('08년)

9) 2009년 8월 OECD의 ICT 관련 조사 자료에 의하면 멕시코는 IT 보급률은 회원국 평균에 비해 약 25% 수준에 머물고 있음.

<그림 3> 중남미 주요국별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 (2008년)

단위: 만 명



자료: Paul Budde Communications(2009)

□ 정부 주도의 온라인 서비스 개발과 확산

- 칼데론 대통령 취임 이후 2007~08년 IT관련 공공투자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학교를 중심으로 인터넷과 PC를 보급하는 E-Mexico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음. 아울러, 동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대부분의 정부 물자 조달을 온라인 입찰을 통해 실시하고 있으며, 2009년 현재 80% 이상의 정부 조달 절차가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음.¹⁰⁾
- 현재 온라인을 통한 전자상거래 사업과 결제 시스템 등이 활발히 개발되고 있음. 멕시코인터넷협회(Mexican Internet Association)에 의하면 2007년 온라인 전자상거래 규모는 전년대비 78% 증가한 9.5억 달러에 달했으며, 이 중 대부분이 관광업 관련 상품 판매였음.
- 한편, 멕시코의 온라인 전자상거래 규모는 멕시코 전체 산업 거래의 2.2%에 불과하여 OECD 회원국 평균인 25%에 크게 못 미치고 있음.

10) 이러한 E-조달 시스템 도입을 통해 정부 행정의 투명성 강화와 부정부패 방지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3. 주요 통신 기업 현황

□ 이동통신기업 현황

- 이동통신시장은 Telcel, Movistar, Iusacell, Nextel 주요 4개사의 과점 체제가 지속되고 있음. 70%대를 상회하는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Telcel과 4~5%대를 기록하고 있는 Grupo Iusacell은 멕시코 법인이며, Movistar와 Nextel은 각각 스페인, 미국계 법인임.

<표 3> 멕시코 이동통신시장점유율(2004~2008년 9월)

연도	Telcel	Movistar	Iusacell	Unefon	Nextel
2004	77%	15%	4%	4%	0%
2005	79%	14%	4%	3%	0%
2006	76%	15%	4%	2%	3%
2007	73%	18%	7%	0%	2%
2008. 9월	72%	19%	5%	0%	4%

자료: Paul Budde Communication 2009

<Telcel>

- Telcel은 America Movil 그룹의 계열사로 2000년 설립 이래 멕시코 이동통신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해 왔으나, Movistar, Nextel의 선전으로 점차 점유율이 하락하여 2008년 9월 기준 72%를 기록하고 있음. 2008년 말 멕시코 내 가입자 수는 약 5,400만 명, 중남미 전체 가입자 수는 153백만 명 이상임.
- 한편, Telcel은 2008년 2월부터 멕시코 주요 도시에 국내 최초로 HSDPA 방식의 초고속 3G망을 개설하여 애플社 아이폰 통신망에 대한 독점권을 취득함.

<Movistar>

- Movistar는 스페인계 Telefonica社의 자회사인 Telefonica Moviles Mexico社의 브랜드 네임으로 2005년 이후 시장 기반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옴. 2008년 9월 기준으로 점유율 19%, 가입자 수 1,500만 명을 기록하였으며, 2008년 11월 8개 도시에서 3.5G망 서비스를 도입·운영함으로써 점유율 제고를 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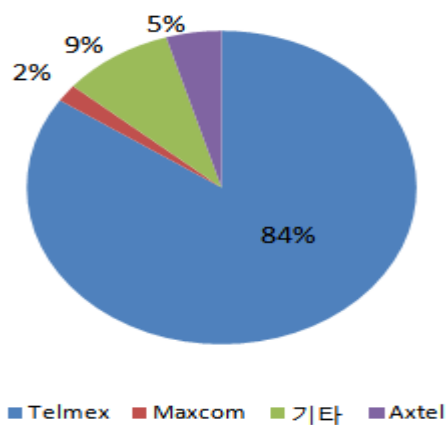
<Grupo Iusacell>

- Grupo Iusacell은 멕시코 3위 이동통신사로 2007년 Unefon을 흡수하면서 점유율과 가입자 수가 두 배 가까이 확대되었으나(7%, 4백만 명), Movistar와 Nextel의 선전으로 2008년 9월 현재 시장점유율이 5%로 감소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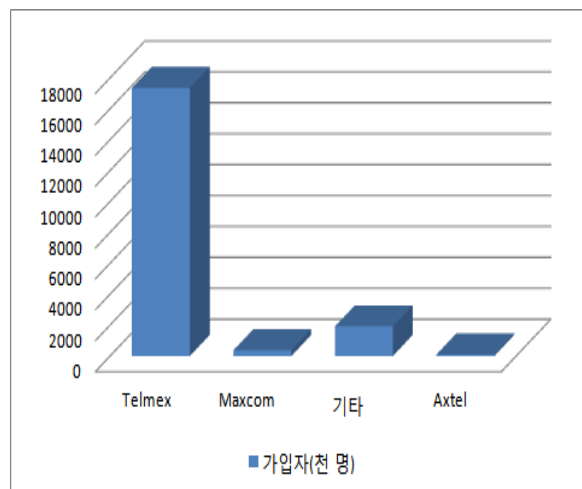
□ 유선통신기업 현황

- 유선통신시장은 Telmex가 유선전화의 84%, 인터넷 60%의 시장 점유율로 압도적인 시장 선도 기업임.

<그림 4>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



<그림 5> 주요 기업별 가입자 수



자료 : BMI 2010, 2009년 3/4분기 기준

<Telmex>

- Telmex가 1997~98년 민영화된 이후 유선통신시장에 신규기업이 우후죽순으로 진입하였지만 여전히 16백만 명 이상의 가입자, 80%대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시장을 주도하고 있음.
- 멕시코 반독점위원회(CFC)의 규제강화와 Telmex의 부채 증가로 사업확장에 부담이 커지자, 2008년 6월 Telmex Internacional(Telint)을 신규 설립하여 전화, TV, 인터넷 등의 분야에서 중남미 진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 Telmex는 이동통신업계 1위인 Telcel의 자매사임.

- 그러나 Telmex의 시장점유율과 가입 회선 수는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이며, 특히 번호이동 서비스 도입 후 대규모 가입 이탈자(약 50만명)가 발생함.

<Axtel>

- Axtel은 업계 2위의 유선통신 기업으로 2006년 12월 Avantel을 합병하면서 시장 기반이 확대되어 200여개 도시에 장거리 전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 2007~08년 기간 동안 합병 이전 대비 18% 증가한 93만 명의 가입자 수를 기록함.

- 2008년 말 Axtel은 음성, 데이터, 인터넷 통합 서비스를 6개 도시에 추가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총 39개 도시에서 통합 서비스를 운영 중임.

<Maxcom>

- 멕시코 내에서 최초로 음성통화, 인터넷, 케이블 TV 사업을 동시 운영하는 체제를 구축하였으며, 2000년대 초반 8만 명에 불과하던 가입자 수는 2008년 36만 명 이상을 기록하며 4배 이상의 성장세를 보임.

4. 향후 전망

□ 신규 시장 진출 기회 확대를 통한 기업간 경쟁 심화 도모

- 2010년 5월 정부는 1.8~1.9GHz와 1.7~2.1GHz 광대역망 사업권을 입찰할 예정이며, 정보통신 시장에 신규 진출하거나 시장점유율을 높이고자 하는 기존의 기업들이 대거 참여할 것으로 기대됨.
- 2009년 3월 현재까지 1.8GHz 입찰에는 44개 기업이, 1.7GHz 입찰에는 49개 기업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짐. 스펙트럼 광역망이 16개 블록으로 구분될 예정이라, 향후 경쟁이 심화¹¹⁾될 것으로 기대됨.
- 동 광대역망 스펙트럼은 WiMAX 서비스의 도입이 가능하며, 기존 기술에 비해 전파 범위가 더 멀다는 WiMAX의 장점을 활용하여 미개발된 내륙지방의 정보통신 서비스 확대에 활용될 가능성 때문에 많은 기업들의 관심을 받고 있음.

□ 농촌 지역에 대한 통신부문 투자 확대 기대

- 멕시코는 지역간, 계층간 소득격차가 커서 저소득층이 주로 거주하는 농촌 지역의 통신망 접근성은 도심 지역에 비해 상당히 낙후되어 있음. 최근 WiMAX 등의 통신 가능 영역을 확장하는 신기술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어, 이러한 기술을 기반으로 향후 농촌지역에 대한 통신망 구축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특히, 멕시코 주요 도시들의 통신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어 따라 향후 통신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내륙지방의 농촌 및 작은 마을 등에 통신망을 확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11) 그러나 Telcel 등 독과점 기업의 입찰 참여가 허용되어 있어 입찰의 추이에 따라 정부가 기대하는 경쟁 심화 효과가 충분히 가시화되지 못할 가능성도 상존함.

□ 향후 정보통신법 개혁 성공 여부가 관건

- 정보통신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 추진중인 1995년의 정보통신법 개정이 시급함. 반독점 규제 강화를 통해 시장 경쟁을 추구하고, 외국인 투자 유치에 우호적인 규정을 포함하는 등, 기존에 미비했던 제도 정비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경기 침체와 실업률 상승 등으로 현 정부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고,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경제 개혁안 추진보다는 2010년 멕시코시티 등 주요 도시의 지자체 선거와 2012년 대선 등이 주요 정치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음. 그러나 깔데론 대통령의 개혁 의지와 노력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정보통신법안의 개정 협상이 성공리에 타결될 경우 대규모의 민간 및 외국인 신규 투자 자금의 유입 및 이로 인한 정보통신 부문의 급격한 성장과 서비스 확대가 기대됨.

조사역 박현희 (☎ 02-3779-6676)

E-mail : sarapark@koreaexim.go.kr